

6년을 기다렸다... 홈런 '핑핑' 이진영의 파워



이진영

류지혁 부상에 콜업 공격 잠재력 보여줘
“첫 홈런 치고 울컥... 자신감 있게 치겠다”



기다렸던 이진영의 파워가 깨어났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주말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모처럼 홈런쇼를 펼쳤다. 22일에는 무려 3개의 홈런이 한 번에 나왔다. 기다렸던 최원준의 마수결이포와 터커의 스리런 그리고 이진영의 프로 데뷔 홈런이 만들어졌다.

이진영은 23일에도 담장을 넘기면서 두 경기 연속 그라운드를 돌았다. 올해로 6년 차 이진영의 감춰왔던 파워가 드러난 주말이었다.

이진영은 지난 4월 28일 나지완이 영구기록 부상으로 빠지면서 시즌 처음 콜업했다. 그리고 등투와 함께 이날 대타로 나와 시원한 2루타를 터트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진영의 장점에 대해 ‘파워’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4월 29일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서 4타석을 삼진으로 물러났다.

짧게 1군을 다녀간 이진영은 5월 22일 이번에는 류지혁의 부상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도 두 경기에서 5개의 삼진은 남겼지만 이를 잇게 하는 극적인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윌리엄스 감독도 “많은 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외야에서 센

터도 볼 수 있고 스피드도 빠르고 파워도 좋다”며 “지난 경기를 통해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진영은 “첫 홈런 치고 울컥했다. 그 전에 잘 안 되고 그런 게 많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다. 공이 넘어가는 순간 진짜 울컥했다”며 “두 번째 홈런 쳤을 때는 나도 이만큼 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첫 홈런은 빗맞아서 타이밍이 앞에서 맞았다”며 “두 번째는 잘 맞았다. 홈런 치려고 해서 친 것은 아닌데 내 앞에서 터커가 공을 많이 보고 안타 치고 나갔다. 내가 7번 타자니까 상대가 나한테는 공 개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초구부터 친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홈런과 삼진 경계에서 있는 이진영은 앞으로도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해서 임지를 굳힐 생각이다.

이진영은 “캠프 끝나고 내려가면서 감독님께서 우리 팀에 오른 손 장타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습했다”며 “지난번에 1군 왔을 때는 첫 경기 때 잘 때서 두 번째 경기 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신인 1-2년 차에는 컨택 위주로 했었다. 하지만 나한테 원하는 것은 장타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다 보니 컨택이 떨어지는 것 같다. 1, 2군의 변화구 차이가 크다”며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니 단점보다는 잘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험 쌓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멥덴 염좌로 엔트리서 빠져... 이민우 선발 준비 최형우 2군 경기 출전 안타 기록 복귀 준비 ‘착착’

안정세로 돌아섰던 KIA 선발진에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외국인 투수 다니엘 멥덴이 오른쪽 굴곡근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KIA는 2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멥덴이 빠지고 홍상삼이 올 시즌 처음 1군에 콜업됐다.

멥덴은 말소 이유는 ‘굴곡근 통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굴곡근에 염증이 생겼다. 지난 등판 때 익스텐션이 제대로 안 나왔다. 선발등판 뒤 조절하며 다음 선발 등판을 준비시켰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일단 엔트리에서 말소시키고 내일 서울 올라가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며 “기존 부상부위와는 다른 부위다. 뱃조각 제거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염좌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내일 서울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멥덴은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44.2이닝을 소화하면서 4.03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2패를 올렸다. 최근 등판인 지난 18일 SSG전에서는 5이닝 9피안타 2볼넷 1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됐다.

초반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브룩스를 중심으로 최근 임기영과 김유신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한시름을 덜었다. 하지만 멥덴이 빠지면서 다시 선발 고민에 빠졌다.

멥덴의 빈 자리에서는 이민우가 다시 한번 어필 무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 감독은 “내일 이의리가 선발로 나온 뒤 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기영과 김유신이 등판하고 일요일에는 이민우를 준비 시켜놨다”며 “이민우가 지난 퓨처스 등판에서 5.2이닝 던지면서 선발 준비는 되어있는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민우는 올 시즌 세 경기에 선발로 나와 8.1이닝 11실점, 평균자책점 11.88의 부진한 성적을 내며 지난 4월 26일 엔트리에 서 제외됐다.

한편 또 다른 부상병 최형우는 복귀를 위해 다시 방방이를 들었다.

방막에 물이 차는 ‘맥락맥락병증’으로 지난 5일 엔트리에서 빠졌던 최형우는 26일 함평 헬리콥터 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대타로 나와 두 타석에 섰다.

최형우는 5회말 오순우의 대타로 출전해 우익수 플라이를 기록한 뒤 7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김태경과의 7구 승부 끝에 좌전안타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완벽한 상태라고 하기에 물이 완전히 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주사치료도 받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복귀 시점은 최형우에게 달려 있는 것 같다. 며칠 동안 최형우가 어떻게 느끼냐를 살펴볼 생각이다. 그동안 운동과 배팅, 웨이트도 계속 해왔다. 최형우가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복귀 시점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7실점 데뷔 최악의 피칭

양현종(33·사진·텍사스 레인저스)이 빅리그 데뷔 후 최악의 경기를 경험했다.

양현종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⅓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5피안타 3볼넷 2탈삼진 7실점(7자책점)을 기록했다.

양현종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38에서 5.47로 치솟았다. 아울러 시즌 2패 위기에 몰렸다. 투구수는 60개를 기록했다.

양현종은 힘든 출발을 했다. 1회 선두타자 저스

틴 업텐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살짝 물리면서 당겨치기 좋은 공이 됐다.

업텐은 폴싱을 했고, 양현종은 홈런을 예감한 듯 타구를 쳐다보지 않았다.

양현종은 2회에도 흔들렸다. 선두 타자 호세 이글레시아스에게 볼넷을 내준 뒤 후속 타자 재러드 윌시에게 우월 투런 홈런을 허용했다.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낮은 체인업을 윌시가 잘 견어 올렸다.

1-3으로 추격한 4회, 양현종은 선두타자 후안 라가레스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호세 이글레



시아스에게 볼넷을 내주며 무사 1, 2루 위기에 놓였다. 양현종은 윌시를 상대하면서 폭투를 던져 무사 2, 3루가 됐고, 이후 우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계속된 무사 1, 3루 위기에선 상대 팀 테일러 워드에 게 1루 방면 기습 번트 적시타를 내줬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고, 양현종의 자책점은 5점으로 늘어났다.

양현종은 스킵키를 좌익수 뜬공으로 막고 강판됐다.

양현종의 승계주자 두 명은 모두 홈을 밟아 자책점이 7점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45년간 5376경기 심판

조 웨스트, 미국 메이저리그 최다 경기 출장 새 역사 썼다



45년간 5376경기. 조 웨스트(69·사진) 심판위원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다 경기 출장 신 기록을 세웠다.

웨스트 위원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 주심으로 나와 1941년에 은퇴한 빌 클렘 전 위원의 기존 기록을 한 경기 경신했다.

웨스트 위원은 23살 때인 1976년 MLB 비정규직 심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고, MLB의 최고 베테랑 심판으로 이름을 날렸다.

웨스트 위원은 2019년 자신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은퇴 선수 폴 로두카를 고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가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

웨스트 위원은 컨트리 음악 앨범 두 장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 야구팬들은 이런 이력 때문에 웨스트 위원에겐 ‘컨트리 조’, ‘카우보이 조’라는 별명을 지었다. MLB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웨스트 위원은 올해까지 현역 활동을 한 뒤 은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림픽 대표팀’ vs ‘베이징 키즈’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7월 23일 24세 이하 올스타팀과 평가전

‘올림픽 대표팀’과 ‘베이징 키즈’가 KBO 올스타전에서 격돌한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오는 7월 2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24세 이하 올스타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올림픽 야구 2연패에 도전하는 리그 최고의 선수들과 KBO의 미래 스타가 함께 하는 ‘빅매치’다.

야구팀이 9전 전승으로 한국 남자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던 2008 베이징 올림픽 전

후로 야구 유니폼을 입은 ‘베이징 키즈’로 구성된 24세 이하 올스타는 대표팀 기술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도쿄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대표선수들과 평가전을 치른다.

24세 이하 올스타팀의 선발 시기와 감독은 추후 확정된다.

KBO의 현재와 미래의 대결은 야구팬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 대표팀은 24세 이하 올스타와 경기 전에

KBO 리그 팀과의 2차례 평가전도 치르며 경기감각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올스타전도 2년 만에 다시 열린다.

7월 24일 고척 스카이돔이 2021시즌 올스타전 무대다.

팬 투표로 선정된 나눔 올스타(KIA, NC, LG, 키움, 한화)와 드림 올스타(두산, KT, 롯데, 삼성, SSG)의 ‘베스트 12’와 감독 추천선수가 올스타무대에 오르게 된다.

올스타에 선정된 야구대표팀 멤버도 정상적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KBO는 6월 초 각 팀이 선정한 올스타 후보, 투표 일정, 팬 이벤트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